

# 영암군민속씨름단, 보은장사씨름대회서 2관왕 달성

‘부상투혼’ 오창록, 통산 12번째 한라장사 등극  
단체전도 우승하며 대한민국 최고 씨름단 증명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지난 7월 30일부터 충북 보은군에서 열린 ‘민속씨름 보은장사씨름대회’에서 단체전과 한라장사를 달성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다수의 선수들이 체급별로 입상했고, 특히 한라급에서는 3명의 선수가 4강에 올라 한라급 최강 논쟁을 종결시켰다.  
오창록 장사는 4강에서 동급 신홍강자로 급부상한 김무호 장사(울주군청)를 꺾고 올라온 박수훈 선수(영암군민속씨름단)를 2-0으로 이겼다.  
또한 결승에서 같은 팀 동료인 차민수 장사와 맞대결에서 3-1로 승리하며 통산 12번째 한라장사에 올라 한라급 최강은 역시 ‘오창록’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데뷔 첫해 장사에 등극했던 차민수 장사는 팀 선배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2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대회 마지막 날은 단체전의 또 다른 우승 후보 울주군청과 마지막 경기까지 가는 치열한 경기였으나 직전 한라장사에 등극한 오창록 장사의 활약으로 우승을 결정지며, 4-3으로 영암군민속씨름단의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선수 모두 함께 이룬 값진 승리였다.  
이로써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총 51회 우승(장사 43회, 전국체전 금메달 2개, 단체전 6회)을 달성하여 대한민국 최고 씨름단임을 실력으로 증명하였다.  
한라장사와 단체전 우승을 견인한 오창록 장사는 “최근 부상으로 성적이 좋지 않았고, 팀 내 선수들 모두 부상으로 고생해서 팀 분위기 많이 무거웠지만, 감독(김기태), 코치(윤정수)님이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지도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 무엇보다도 변치 않고 응원해주신 영암군민과 향우분들 덕에 힘이 나



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짧긴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영암군청 전직



원이 추진하는 1인 1포 사주기 운동에 영암군민속씨름단(감독 김기태)도 가까이 동참하여 300포를 구매하였다. “군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운영되는 씨름단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



## 英 BBC “케인이 손흥민에게 화를 냈다” EPL 최다골 합작 듀오 개막전 갈등 조명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최다골 합작 듀오가 시즌 개막전에서 갈등을 빚었다.  
토트넘은 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EPL 1라운드에서 사우샘프턴에 4-1 대승을 거뒀다.  
선발로 출전한 손흥민은 1-1 상황이던 전반 31분 에릭 다이어의 역전 결승골을 도왔다.  
하지만 EPL 최다골 합작 파트너인 해리 케인과 호흡은 아직 영점 조준이 되지 않는 듯 어긋났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상대 페널티 지역을 파고든 뒤 오른쪽 슛을 때렸더니, 골대를 크게 넘었다. 이때 반대편에서 있는 케인이 손흥민을 향해 소리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완벽한 패스 타이밍에서 무리하게 슈팅을 시도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슛을 시도한 뒤 그라운드에 누워 있던 손흥민도 케인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올리며 맞대응했다.

해당 장면은 현지에서도 화제가 됐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경기 후 “케인이 손흥민에게 화를 냈다”며 “손흥민은 케인에게 더 많은 공간이 있었지만, 패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EPL 최고의 파트너지만, 이 장면에선 케인이 손흥민에게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토트넘에서 뛰었던 수비수 마이클 도슨은 영국 스포츠포츠에서 “케인이 손흥민에게 불만을 보인 건 연인들이 싸우는 모습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손흥민과 케인은 2015년부터 호흡을 맞춰 지난 시즌까지 정규리그에서만 총 41골을 합작했다. 이는 프랭크 램파드-디디에 드로그바(36골)를 넘어 EPL 역대 통산 최다 합작골 기록이다. 둘은 토트넘엔 없어선 안 될 최고의 공격 옵션이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23골(7도움)을 터뜨려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에 올랐고, 케인은 17골(9도움)로 토트넘이 4위를 차지하는 데 공헌했다.

## 김민재, 프리시즌 3경기 연속 선발...나폴리는 무승부

국가대표 ‘괴물 수비수’ 김민재(26·나폴리)가 프리시즌 3경기 연속 선발 출전으로 팀 내 입지를 다졌다.  
김민재는 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카스텔 디 산그로에 테오필로 파티니 경기장에서 치러진 에스파뇰(스페인)과의 프리시즌 친선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팀의 무실점에 기여했다.  
이날 나폴리는 에스파뇰과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다.  
선발로 출전한 김민재는 후반 25분까지 뛰다 중앙 제주스와 교체됐다.  
지난달 27일 나폴리에 입단한 김민재는 프리시즌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다.



지난 1일 마요르카(스페인)와 친선경기(1-1 무)는 선발로 45분을 뛰었고, 4일 지로나(스페인)와 친선경기(3-1 승)는 선발로 출전해 69분을 소화했다.  
프리시즌 경기를 모두 마친 나폴리는 이탈리아 세리에A 개막을 앞두고 있다.  
나폴리는 16일 오전 1시30분 베로나와 2022-2023시즌 세리에A 개막전을 치른다.

##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팀, 제60회 대통령기서 혼복 우승

남자일반부 단체전도 준우승...혼합복식 금메달 이어 은메달도 획득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팀 단체사진. (왼쪽부터) 장인성, 이하늘, 김만열, 강해준, 진희성, 추문수, 이민석.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팀이 제60회 대통령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직무대행 최기동)는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안성시에서 개최된 “제60회 대통령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팀이 혼합복식 석권에 이어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 7월27일 일반부 혼합복식 결승에서 이하늘(순천시청)은 같은 소속팀인 장인성(순천시청)과 혼합복식에서 맞붙었다.

이하늘(순천시청)은 고은지(울진군청)와 조를 이뤄 장인성(순천시청)-김연화(안성시청)조와 실력을 겨루며 접전 끝에 5-4로 이하늘-고은지 조가 혼합복식 우승을 차지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장인성-김연화 조는 준우승,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순천시청은 단체전 결승에 앞서 달성군청을 2-0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 수원시청도 문정시청을 2-0으로 꺾고 올라오며 결승에서 만났다.  
순천시청은 진희성·장인성 조가 결승 제1복식으로 나가 수원시청 김태민·윤지환을 만나 이쉽게 5-2로 패, 제2단식에서 강혜준(순천시청)이 국가대표 김진웅(수원시청)을 만나 4-0으로 패하며 이쉽게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백수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 감독은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다”며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매진한 결과인 것 같다”며 “믿고 따라와준 우리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을 전했다.  
김태성 순천시청 직장운동부 총감독은 “순천시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좋은성적을 거두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와 올 10월 열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각종 대회를 잘 준비해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손흥민·김민재, 새 시즌 유럽서 주목할 아시아 선수 7인에 선정

EPSN, 동남아시아 선수 유일 베트남 응우옌 팡하이도 이름 올려

한국 축구의 공수를 대표하는 손흥민(토트넘)과 김민재(나폴리)가 2022-2023시즌 유럽 무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아시아 선수 7명에 선정됐다.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6일(한국시간) 유럽 리그에서 눈여겨봐야 할 아시아 선수 7명을 선정했는데 손흥민, 김민재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23골을 터뜨리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ESPN은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문제는 그가 더 나아질 수 있는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라와 함께 EPL 골든부트를 획득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된 것은 대단한 업적이다. 전성기에 있고, 토트넘에서도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11월 열리는 2022 카타르월드컵은 변수로 봤다.  
매체는 “손흥민이 한국대표팀의 주장으로 받을 압박감이 있다. 한국은 H조에서 우루과

이, 가나, 포르투갈을 상대로 압박이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김민재에 대해선 “손흥민, 황의조(보르도), 황희찬(울버햄튼), 황인범(올림피아코스) 등이 한국의 주요 선수들이었다면 김민재가 이제 새로운 스타로 등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튀르키예에 페네르바체를 떠나 이탈리아 세리에A에 진출한 김민재는 유럽 4대리그에 진출한 한국인 역대 두 번째 수비수다.  
ESPN은 “당당한 체격과 투쟁적인 모습으로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며 “(헬시로 이직한) 칼리두 툴리발리를 대체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빠른 발전과 뛰어난 수비능력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손흥민, 김민재 외에 미나미노 타쿠미(일본·AS모나코), 미토마 카오루(일본·브라이튼), 메히디 타레미(이란·포르투), 지단 이크발(이라크·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7인에 포함됐다.  
또 동남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응우옌 팡하이(베트남·파우)가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 이상혁, 다이아몬드리그 대회 출전 위해 출국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고 있는 이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다시 한번 날아오른다.  
이상혁은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대회 출전을 위해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그는 11일 모나코 대회,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한다. 9월 8-9일 튀니지에서 벌어지는 다이아몬드리그 최종전까지 나서는 게 목표다.  
올해 다이아몬드리그는 총 13차례 치러진다. 이 중 5개 대회에서 남자 높이뛰기 경기를 한다. 도하, 버밍엄, 로마 대회는 이미 끝났고 2개 대회가 남았다.  
다이아몬드리그 각 대회 1위는 랭킹 포인트 8점을 얻고, 순위에 따라 랭킹 포인트가 차등 지급된다.  
그리고 랭킹 포인트를 더해 ‘왕중왕전’ 성격의 파이널 대회에 나설 6명을 선정한다.  
이상혁은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인 도하 대회에서 우승해 랭킹 포인트 8점을 따냈다. 이후 버밍엄, 로마 대회는 뛰지 않았다.  
현재 다이아몬드리그 랭킹 포인트 6위에 올라있는 이상혁은 모나코 대회에서 우승 또는 준우승을 차지하면 최종전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